

국내 전자출판물의 납본·수집 현황 분석*

Analysis of the Status of Legal Deposit and Acquisition of Electronic Publications in Korea

김 규 환 (Gyuhwan Kim)**

정 대 근 (Daekeun Jeong)***

김 수 정 (Soojung Kim)****

< 목 차 >

I. 서론	III. 연구 방법
II.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및 수집 대상으로서 전자출판물	IV. 분석결과
	V. 논의 및 결론

요약: 본 연구는 최근 3년(2020-2022)간 국내 전자출판물의 납본·자체수집·수증 현황과 ISBN이 발급된 전자출판물의 납본 및 미납본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전자출판물의 납본 의무 이행 독려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먼저 국내 전자출판물의 납본·자체수집·수증 현황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자출판물 수집형태는 자체수집(57.07%), 납본(41.74%), 수증(1.19%)이었으며, 파일 형식은 전자책(pdf, epub), 웹툰(jpg), 오디오북(mp3)으로 다양하였다. 주로 2012년부터 2022년 사이에 출판된 전자출판물이 수집되었으며, 196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출판된 자료도 일부 수집되었다. 자체수집은 웹툰이 많았고, 납본은 전자책이 주를 이루었다. ISBN 발급 현황을 보면, 자료유형은 전자책(96.2%)이, 주제분야는 문학 분야가 가장 많은 ISBN을 발급받았다.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가장 많은 ISBN이 발급되었다. ISBN 발급 상위 10위 발행처의 납본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ISBN 발급을 받은 발행처들의 납본율이 저조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선방안으로 발행처의 납본 의무에 대한 인식 제고, 인센티브 제공 및 제재 조치 강화, 납본 현황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 그리고 ISBN 발급 및 납본 시스템의 데이터 정확성 향상을 위한 기술적 조치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전자출판물, 납본, 수집, 국립중앙도서관, ISBN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legal deposit, acquisition, and donation status from 2020 to 2022, along with the deposit status of e-publications with issued ISBNs. Through this analysis, the study derived improvement measures to strengthen compliance with legal deposit obligations for domestic e-publications.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The collection methods were acquisition (57.07%), legal deposit (41.74%), and donation (1.19%). The file formats varied, including e-books (pdf, epub), webtoons (jpg), and audiobooks (mp3). Most e-publications collected were published from 2012 to 2022, with some from 1960 to 2011. Webtoons dominated acquired materials, while legal deposits mainly comprised e-books. Analyzing the status of e-publications with issued ISBNs, e-books (96.2%) were most common, with the literature field receiving the highest number of ISBNs. Most ISBNs were issued during 2020 to 2022. Looking at the top 10 publishers, the low legal deposit rate indicates the need for improvement. To address this,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include enhancing publishers' awareness of legal deposits, strengthening incentives and sanctions, encouraging voluntary participation through transparent disclosure of the legal deposit status, and improving the accuracy of data in the ISBN issuance and deposit system.

KEYWORDS: Electronic Publication, Legal Deposit, Acquisition, National Library of Korea, ISBN

- * 본 연구는 2023년도 국립중앙도서관 '국내 전자출판물 통계조사 기초 연구'의 일부분을 수정·보완한 것임.
** 인천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gyuhwan@inu.ac.kr / ISNI 0000 0004 6428 1251) (제1저자)
*** 광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dkjeong@gwangju.ac.kr / ISNI 0000 0004 6360 8718) (공동저자)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연구원
(kimsoojung@jbnu.ac.kr / ISNI 0000 0004 6324 634X) (교신저자)

- 논문접수: 2023년 12월 4일 • 최초심사: 2023년 12월 8일 • 게재확정: 2023년 12월 15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4(4), 281-306, 2023. <http://dx.doi.org/10.16981/kliss.54.4.202312.281>

© Copyright © 2023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디지털 미디어의 일상화가 시작되면서 출판산업은 전통적인 인쇄출판에서 전자출판으로 전환되고 있다. 출판사들의 종이책 매출은 매년 줄어드는 반면 전자책의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0 출판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자책 유통사의 매출 규모는 4,198억으로 추정된다(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1a). 또한 『공공도서관 전자출판물 B2B 계약 개선 연구』에서는 ISBN 신청 건수가 종이책이 12만 8천 건이었으며, 전자책은 14만 2천 건으로 전자책의 신청 건수가 종이책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출판 산업의 전환은 최근에는 웹소설과 웹툰 산업의 빠른 성장을 중심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한국출판콘텐츠, 2020). 『2022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 산업 규모가 2020년에 10,538억 규모에서 2021년 15,660억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또한 전자출판 산업의 발전과 기술의 진보에 따라 오디오북과 챗봇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가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20). 현재 국내 전자출판 산업에서는 전자책뿐만 아니라 웹소설, 웹툰, 오디오북 등 다양한 형태의 전자출판물의 유통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은 2016년부터 도서관법령과 관련 내부 지침을 마련하여 전자책, 웹소설, 웹툰, 오디오북을 포함한 다양한 온라인 자료를 납본 및 수집하고 있다. 도서관법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에 따라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납본받고 있으며, 도서관법 제22조(온라인 자료의 수집)에 따라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하고 있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16조(온라인 자료의 수집)에서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유형을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웹사이트와 웹자료 등으로 규정하고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국립중앙도서관 고시 제2022-2호)를 통해 웹자료의 종류를 문자자료, 음성·음향자료, 영상자료, 이미지자료로 크게 구분하고 하위 온라인 자료 형태들을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롭게 등장하는 웹소설, 웹툰, 오디오북, 음원 등 전자출판 시장의 트렌드에 발맞춰 온라인 자료 납본 및 수집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정리하면 ISBN을 발급받은 전자책, 웹툰, 웹소설, 오디오북 등은 납본의 의무 대상이며 ISBN을 미발급받은 전자출판물은 납본의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보존가치가 높은 자료들로서 수집 및 보존의 대상 자료가 된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의 원활한 납본 및 수집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납본·수집 지침’을 2022년 7월에 제정하였고 2023년 6월에 개정한 바 있다. 본 지침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온라인 자료를 납본, 자체수집, 수증의 3가지 방법으로 수집해 오고 있다.

국내 전자출판물의 유통 규모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전자출판물을 포함한 온라인 자료의 납본 및 수집 체계를 갖춰가고 있는 현재, 국내 전자출판물의 납본 및 수집현황은 어떠한가? 전자책의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발급과 납본 현황을 분석한 ‘국제표준자료번호와 납본업무 연계 및 효과성 조사연구’(출판유통진흥원, 2021)에 따르면 전자책의 ISBN 발급 대비 전자책 납본율은 약 10%로 조사되어 실제 ISBN이 발급된 전자책에 대한 납본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 납본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은 발행처일수록 ISBN 발급 대비 납본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ISBN 발급과 납본을 연계하는 것이 납본에 대한 출판사의 인식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납본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며, 특히 ISBN 발급 신청과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과의 연계한 통계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출판유통진흥원, 2021). 통계정보 제공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 수집보상체계 수립방안 연구(이지연 외, 2022)’에서는 2021년 국립중앙도서관 연보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온라인 자료 납본 현황 통계에는 웹툰, 웹소설, 오디오북, 음원에 따른 분류는 따로 집계되지 않아 관련 자료의 정확한 숫자를 확인할 수 없으며, 통계 항목 분류 조건에 음성·음향자료에 음원과 오디오북이 포함되며 전자책에 웹툰, 웹소설이 포함되어 집계되어 있어 온라인 자료별로 ISBN이 얼마나 발급되고 납본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의 납본 및 수집을 위해서는 ISBN이 발급된 온라인 자료에 대해서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해 납본 및 수집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체계적인 납본 및 수집의 기초를 갖추는 중요한 단계임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전자출판 산업에서 그 비중이 커져가고 있는 전자책, 웹소설, 웹툰, 오디오북을 포함하는 전자출판물을 대상으로 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 자체수집 및 수증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이를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이 어떤 유형의 전자출판물을 어떠한 방식(납본, 자체수집, 수증)으로 수집하며 수집방법별 어떤 발행처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ISBN을 발급받은 전자출판물의 실질적인 납본 현황을 분석하여, ISBN 발급 대비 납본율과 ISBN 발행 건수가 높은 발행처의 납본 현황을 조사한다. 이를 통해 전자출판물의 납본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협력 방안과 납본 의무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국내 전자출판물의 납본 및 수집 현황을 파악하고 ISBN을 발급받은 전자출판물의 안정적인 납본 및 수집을 위한 정책 수립에 있어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선행연구

오랫동안 정보자료의 주축이 되어왔던 인쇄자료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납본제도는 1990년대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급증으로 포괄적인 국가장서 수집도구로서의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서혜란, 2003). 이에 따라 2000년대 초반부터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을 수용하기 위해 기존의 납본

제도를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의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먼저 윤희운(2002)은 인쇄자료 중심의 납본법령이 새로운 전자출판 및 유통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을 인식하고, 국내·외 전자출판물 납본법의 성격과 체계, 납본주체와 피납본기관, 대상자료의 범주, 납본의 부수와 시한, 납본자료의 매체변형, 보상과 제재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윤희운, 2003)에서 납본제도의 법령체계와 구성내용을 중심으로 납본제도 개선모형을 제안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서혜란(2003)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해외 국가들의 디지털자료 납본 제도를 분석하고 디지털자료의 수집을 위한 납본 제도의 확대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숙현(2003)은 당시 온라인 전자출판물이 납본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국내·외 온라인 전자출판물의 수서 방향을 자료 구입, 웹상의 링크를 통한 정보 수집, 그리고 납본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전자출판물을 납본 대상으로 규정할 것을 건의하였다. 장보성, 남영준(2010)은 전자출판물 중에서도 전자책의 보존에 중점을 두고 납본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최재황, 박승진, 김정택(2009)은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수집과 보존을 위해 IFLA 납본 지침과 해외 국가의 납본 관련 법률 및 지침을 분석하고, 저작권 소유·유관단체 및 관련 기업과 이용자의 의견, 납본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총 16개의 납본요소를 정리한 후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체계와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박승진 외(2013)도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범위에서 납본 불이행 시 납본주체에 대한 제재까지 총 14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디지털자료의 납본 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로 박승진 외(2008)는 국내 음악 및 전자책 저작권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디지털자료의 납본 보상 비용 기준을 제시하였다.

한편, 납본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둔 연구들도 수행되었다. 한혜영(2003)은 전자출판물의 납본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의 모델을 제안하고, 시스템 구축 시 관리적, 기술적 측면의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정준민(2019)은 디지털 출판물을 위한 납본시스템 기반의 유통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개념적으로 설계하였다. 이 모델은 출판/독서와 관련된 모든 구성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의 방식을 취하며,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시스템과 전국의 도서관망을 하나로 묶어서 이용자들이 한 곳에서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 전자출판물에 국한하지 않고 폭넓게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장서의 포괄성을 측정하거나 납본 수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연구들도 수행되었다. 장혜란 외(2009)는 서지대조법을 적용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장서 중 판매도서의 포괄성을 측정함으로써 수집 현황을 평가하였다. 2007-2008년 교보문고 출판도서목록의 10%를 표집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목록과 비교한 결과, 판매도서에 대한 2년간의 누적포괄성이 85.16%로 나타나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영희(2009)는 국내·외 납본법 중에서 납본보상 여부, 미납본에 대한 제재조치 여부, 미납본에 대한 과태료 징수 절차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납본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업무 자체 수행, 납본부서의 신설, 납본지원시스템의 개발, 납본 부수 및 납본

보상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윤희운(2014)은 국내 납본수집 대상자료의 모집단을 추정하고, 납본법제에 대한 대대적 개편을 비롯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수집력 강화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들은 주로 해외 국가들의 전자출판물 납본법령과 제도를 분석하여 국내 납본제도를 법·정책의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거나 납본시스템의 기술적·관리적 측면을 다루었다. 그리고 다른 연구들은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장서의 포괄성을 측정하거나 납본수집 대상자료의 모집단을 추정한 후 납본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내 전자출판물 데이터를 수집하여 납본 및 수집 현황을 분석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자출판물 납본 및 수집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및 수집 대상으로서 전자출판물

1. 전자출판물의 개념 및 유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제4호에 따르면 “전자출판물”이란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정의하는 전자책/전자출판물에 해당하려면 다음 <표 1>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1b).

<표 1> 전자책/전자출판물의 요건

구분	요건
내용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책/전자출판물에 담을 내용, 즉 콘텐츠가 있어야 함 • “저작물 등의 내용”이므로 저작물이 중심이 되지만, 반드시 저작물일 필요는 없음 •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권법 제2조)을 말하므로, 남의 것을 베끼지 않는 창작적인 요소가 있어야 함 •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창작적인 요소가 적어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내용’에 해당함
전자적 매체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야 함
출판사 발행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발행한 것이어야 함 • 출판사로 신고하지 않은 개인이나 유통업체 등에서 발행한 것은 전자적 매체에 실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전자책/전자출판물에 해당하지 않음
간행물 기록사항 표시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책/전자출판물은 간행물의 특수한 형태임.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사항을 표시한 것”을 말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사항”이란 제1호 출판사, 제2호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로 같음할 수 있다)를 말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 - 따라서 전자책/전자출판물에는 ① 저자, ② 발행인, ③ 발행일, ④ 출판사, ⑤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또는 콘텐츠식별체계(UCI(KEPA)) 등 5가지 기록사항을 표시해야 함

그러나, 전자책/전자출판물의 성립 요건을 갖추었다더라도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정기간행물, 신문 및 인터넷 신문에 대해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적용되지 않고, 별도로 정한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적용범위)). 따라서 전자잡지 등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전자간행물은 정기간행물로 분류되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웹소설과 웹툰은 전자책/전자출판물의 성립 요건만 갖추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의 적용을 받아 전자출판물에 포함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는 종이책은 ‘출판’산업으로, 전자책은 ‘디지털문화콘텐츠’산업으로 구분한다(「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전자책의 제작 측면에서 볼 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르면 ‘제작이란 기획·개발·생산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유형·무형의 전자책을 만드는 것을 말하며 종이책의 디지털화 등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정의하고 있어 종이책의 디지털화도 전자책으로 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출판물의 기준(외국 전자출판물 포함)을 <표 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2> 「부가가치세법」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기준

구분	내용
형태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4호(단, 외국 전자출판물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아닌 출판사도 허용)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출판물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함
기록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 제22조 제3항(외국 전자출판물은 제외),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기록사항(저자, 발행인, 발행일, 정가, 출판사, 자료번호)
자료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3조의 “콘텐츠 식별체계”의 식별번호(사단법인 한국전자출판협회가 인증시 부여) 또는 「도서관법」 제21조의 “국제표준자료번호” • 외국 전자출판물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아닌 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제표준자료번호도 허용

국내 전자출판물은 매체 특성을 기준으로 크게 전자책, 엠픽, 오디오북, 웹소설, 웹툰으로 구분할 수 있다(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1b). 첫째, 전자책은 종이책으로만 보던 책들을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해 책 원문을 PC나 스마트폰, 전자책 전용 리더기 등의 기기를 통해 이용하는 콘텐츠를 말한다. 제작이 용이하여 셀퍼블리싱 형태로 많이 제작되었고 더욱 다채로운 기능이 가능해지면서 전자책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둘째, 엠픽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개인용 컴퓨터 등 단말 기기에서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실행되는 전자책을 말한다. 소프트웨어 특성이 강화된 전자책으로 애니메이션의 음성, 동영상, 삼차원(3D) 그래픽스, 상호 작용성 등을 통해 듣고, 보고, 만지는 사용자 경험(UX: User eXperience)을 제공한다. 셋째, 오디오북은 텍스트를 소리 및 음성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책으로 종이책을 읽어주는 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확대되고 있다. 넷째, 웹소설은 웹소설 플랫폼에서

연재되는 소설을 지칭하며, 기존의 인터넷 소설에 기원을 두고 있다. 다섯째, 웹툰은 웹(web)과 카툰(cartoon)의 합성어로 각종 멀티미디어 효과를 동원해 제작된 디지털 만화를 말한다. 스크롤을 이용한 세로 읽기가 가장 큰 특징이었으나 최근에는 컷툰, 스마툰 등 다양한 형태의 웹툰이 등장하고 있다.

2.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및 수집 대상 전자출판물

가. 온라인 자료의 정의와 유형

도서관법 제3조(정의)에 의하면 온라인 자료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송신(「저작권법」 제2조 제7항의 공중송신) 되는 자료를 말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와 제22조(온라인 자료의 수집)에 기반하여 온라인 자료를 납본 및 수집하고 있다(〈표 3〉 참조).

〈표 3〉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및 수집 법적 근거

구분	내용
도서관법 제21조 (도서관 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3조에 따라 국가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도서관법 제22조 (온라인 자료의 납본)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하여야 한다. ②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선정·종류·형태와 수집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16조 (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웹사이트, 웹자료 등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제17조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로 한다.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 제3조(종류)	제3조(종류)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웹사이트 2. 웹자료 1) 문자자료: 전자책, 전자저널, 학위논문, 보고서, 전자신문, 웹툰, 웹소설 등 2) 음성·음향자료: 음악자료(음원), 음성자료(강의, 연설, 인터뷰, 오디오북), 음향자료(효과음) 등 3) 영상자료: 방송, 영화, 공연, 이러닝자료 등 4) 이미지자료: 사진, 회화 등

이상의 법적 근거를 토대로 보면,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 및 수집 대상 온라인 자료는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에 따라 웹사이트와 웹자료이며 웹자료에는 문자자료, 음성·음향자료, 영상자료, 이미지자료를 포함한다.

나. 온라인 자료의 수집방법 및 대상 자료

국립중앙도서관은 상기에서 제시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납본 및 수집 업무처리를 위해서 「온라인 자료 납본·수집 지침(2003)」(국립중앙도서관, 2023a)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본 지침에 따라 온라인 자료는 납본, 자체수집, 수증의 3가지 방법으로 수집되며 수집방법별 구체적인 수집 대상 자료는 <표 4>와 같다.

<표 4>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자체수집·수증 방법별 수집 대상 온라인 자료

구분	내용
납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디지털 파일(이하, 공공간행물 디지털 파일)
자체수집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 중에서 납본제도 시행 전 국내에서 발행·제작된 자료 •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가 미부여된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자료 •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서 직접 다운로드가 가능한 공개자료 및 CCL(저작물 이용 허락) 자료 • 크롤링 등 기계적 방법으로 수집 가능한 공개된 온라인 자료 • 기타 정보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출현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료
수증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 국립중앙도서관 미소장 자료 • 인쇄자료의 디지털파일(PDF 등)로써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화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 • 외국에서 발간된 온라인 자료 중에서 저자(제작자)가 한국인이거나 그 내용이 한국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료 • 기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료

실제로 납본 대상 발행처들을 대상으로 안내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납본 안내 페이지¹⁾에서는 납본 대상을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발급받은 전자책, 웹툰, 웹소설, 오디오북 등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특히 웹툰과 웹소설은 완결본에 한해서 납본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 외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국립중앙도서관, 2023b)과 최근에 수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납본 외 수집 보상체계(안)(이지연 외, 2022) 연구를 통해서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 및 수집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다.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및 수집 대상 전자출판물

이상에서 살펴본 규정 및 지침들을 토대로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및 수집 대상 온라인 자료 중에서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것들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책, 웹툰, 웹소설, 오디오북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전자출판물의 통계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1) <https://www.nl.go.kr/seoji/contents/S50102010000.do>

〈표 5〉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및 수집 대상 전자출판물

구분		정의	수집 포맷	비고	
전자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자료 > 문서자료 > 전자책(장서개발지침) • 문자나 화상과 같은 정보를 전자 매체에 기록하여 서적처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도서를 총칭(두산백과)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 p.71. 두산백과.	
웹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작·유통되는 만화를 의미하며, 이미지 형과 연재 종료 후 단행본으로 출판한 전자책형으로 구분 	디지털 만화		
전자책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재형 웹툰을 출판한 단행본 	ePUB, PDF/A 등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외 수집 보상체계(안). pp. 6~7.	
이미지형	연재형	완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완결(n부만 완결) 웹툰 • 전체 완결 웹툰 		JPEG, JPG, TIFF, TIF, PNG, GIF, BMP 등
		미완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재중단, 2년 이상 휴재 웹툰 • 연재중 웹툰 		
	비연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정책 홍보 등 일회성 웹툰 			
웹소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르소설(판타지, 무협 등)을 의미하며, 연재형을 단행본으로 출판한 전자책형만 수집대상임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납본 외 수집 보상체계(안) pp. 8~9	
전자책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재형 웹소설을 출판한 단행본 	ePUB, PDF/A 등		
이미지형	연재형	완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완결(n부만 완결) 웹소설 • 전체 완결 웹소설
		미완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재중단, 2년 이상 휴재 웹소설 • 연재중 웹소설
오디오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성우나 저자가 직접 책을 낭독하여 눈으로 읽는 대신 귀로 들을 수 있게 제작한 디지털 콘텐츠 • 음성·음향 > 오디오북(장서개발지침) 	WAV, MP3 등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 p.72.	

Ⅲ. 연구 방법

1. 데이터 수집 및 정제

먼저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최근 3년(2020-2022) 간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자체수집·수증 방식으로 입수한 국내 전자출판물 현황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첫째, 국립중앙도서관 통합자료관리시스템에서 등록일이 2020년에서 2022년인 전자출판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수집방법은 납본, 자체수집, 수증으로 구분하였다. 셋째, 통합자료관리시스템에 단행자료로 등록된 자료 중에서 전자책, 웹툰, 오디오북을 선별하였다. 통합자료관리시스템의 경우 웹소설은 연재가 아닌 완결본으로 입수되어 전자책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시 웹소설을 전자책에 포함하여 계산하였다. 통합자료관리시스템으로부터 전자책(웹소설 포함), 웹툰, 오디오북은 다음의 조건을 부여하여 선별하였다.

- 전자책: 콘텐츠 유형이 '텍스트'이면서 장르가 일반도서, 법령자료, 회의자료, 통계자료, 보고서, 명감, 백서, 사진, 연보인 자료(단, 학위논문, 웹문서는 제외)
- 웹툰: 콘텐츠 유형이 '텍스트'이면서 장르가 만화인 자료
- 오디오북: 콘텐츠 유형이 '사운드'이면서 장르가 오디오북인 자료

넷째, 다음의 자료는 제외하였다.

- 구독, 연계, 디지털화 제작 원문
- TEST 입력 자료
- 장르가 일반도서 중 한국산업표준(KS) 전질(사유: 웹문서에 가까움)
- 서비스 상태가 '등록제외'인 자료
- 연속간행물(단, 개별 단위로 전자책 ISBN을 입력한 경우에는 포함)

이상의 과정을 통해 최근 3년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자체수집·수증 방식으로 입수한 국내 전자출판물 데이터는 총 314,802건이 수집되었다. 그리고 ISBN이 비정상적인 패턴으로 기술된 경우, ISBN이 인쇄본인 경우, 동일한 자료인 경우, 동일한 ISBN을 가지면서 제목이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8,842건을 제거하여 305,960건(98%)으로 정제하였다. 정제된 305,960건을 대상으로 통계분석에 활용한 속성은 결측값이 없고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자체수집·수증 현황 조사에 유의미한 속성으로 [자료유형], [수집방법], [수집방법(상세구분)], [발행년²⁾], [파일형식]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최근 3년(2020-2022)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ISBN을 발급받은 국내 전자출판물 현황 및 납본 여부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다음의 조건을 토대로 수집하였다. 첫째, ISBN 발급일이 2020년부터 2022년인 전자출판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ISBN 발급 신청시 기재된 파일형식이 전자책, 오디오북인 것을 선별하였다. ISBN 발급 신청서에서는 웹소설과 웹툰을 전자책에 포함하고 있어 웹소설, 웹툰, 전자책이 구분되지 않는다. 이에 ISBN 발급 신청서에 서비스상태 정보를 토대로 웹소설과 웹툰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서비스상태 정보의 경우 온라인 서비스 웹소설, 온라인서비스 웹툰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웹소설과 웹툰 현황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다음의 자료는 제외하였다.

- 파일형식이 전자책이지만 CD/DVD 등의 부가정보가 있는 경우
- 파일형식이 CD/DVD이고 서비스형태가 '오프라인 유통'인 경우
- 날권 ISBN 없이 세트 ISBN만 있는 경우

2) [발행년]은 [발행일] 데이터에서 발행년도만 별도로 추출하였음

넷째, 상기에서 추출된 ISBN 발급 자료들을 대상으로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여부를 조사하여 추가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경우에는 'Y'값을 부여하고 납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N'값을 부여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최근 3년(2020-2022)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ISBN을 발급받은 국내 전자출판물 데이터는 총 513,136건이 수집되었다. 수집된 513,136건의 경우 결측값이 거의 없어 513,136건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ISBN 발급 자료 및 납본 현황 조사에 유의미한 속성으로 [자료유형], [ISBN], [주제분야], [발행처], [서비스상태], [파일형식], [납본 여부]를 선정하였다.

2. 통계조사 내용 및 방법

통계조사는 크게 2가지 영역에서 진행하였다.

조사영역 1: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자체수집·수증 현황

조사영역 2: 국립중앙도서관 ISBN 발급자료 및 납본 현황

2가지 영역별 세부적인 통계조사 내용을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통계조사를 위해서 엑셀(excel)과 파이썬(python)을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통계조사기법으로는 빈도분석과 시각화 기법을 적용하였다.

<표 6> 통계조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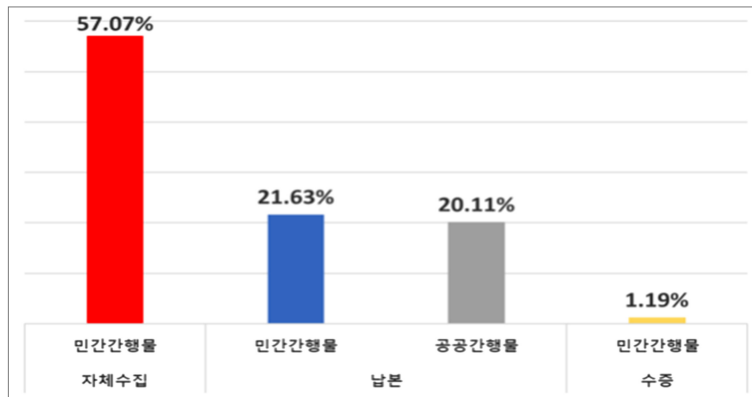
영역	조사기간 및 조사내용	
	조사기간	최근 3년간(2020-2022)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자체수집·수증 현황	조사기간	최근 3년간(2020-2022)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방법 현황 • 자료유형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유형별 비율(%) - 자료유형별 수집방법(건수) - 자료유형별 파일형식(건수) • 발행년 분포 현황 • 수집방법별 상위 5위 발행처 현황
국립중앙도서관 ISBN 발급자료 및 납본 현황	조사기간	최근 3년간(2020-2022)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BN 발급자료의 일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유형 - 주제분야 - 파일형식 - ISBN 발급건수 상위 10위 발행처 • ISBN 발급자료의 납본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본 및 미납본 현황 - 주제분야별 납본 및 미납본 현황 • ISBN 발급건수 상위 10위 발행처의 납본 현황

IV. 분석결과

1.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자체수집·수증 현황

가. 수집방법 현황

최근 3년간 국립중앙도서관에 입수된 전자출판물의 수집방법별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공공간행물과 민간간행물로 구분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납본·수집 지침(2023)』(국립중앙도서관, 2023a)에서는 온라인 자료 및 공공간행물 디지털 파일을 납본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수집된 데이터에는 공공간행물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공공간행물이 아닌 경우에는 민간간행물로 구분하였다. 최근 3년간 국립중앙도서관에 입수된 전자출판물의 수집방법별 비율을 보면, 자체수집이 57.07%, 납본이 41.74%, 수증이 1.19%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납본의 경우에는 민간간행물 납본이 21.63%이고, 공공간행물 납본이 20.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국립중앙도서관에 입수된 민간간행물로 국한하면, 전자출판물 발행처에 의한 납본 이행(21.63%)보다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의한 자체수집(57.07%)이 주된 수집방법인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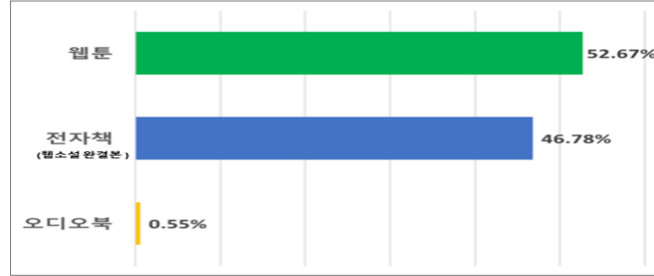


〈그림 1〉 최근 3년간 납본·자체수집·수증 자료의 수집방법(%)

나. 자료유형별 현황

(1) 자료유형별 비율(%)

최근 3년간 국립중앙도서관에 입수된 전자출판물의 자료유형 현황을 보면, 웹툰이 52.67%, 전자책이 46.78%, 오디오북이 0.55%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전자책은 웹소설 완결본이 포함된 비율이다. 최근 3년간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웹툰과 전자책(웹소설 완결본 포함) 자료유형이 주로 수집되었고 웹툰이 전자책(웹소설 완결본 포함)보다 조금 더 많이 입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2〉 최근 3년간 납본·자체수집·수증 자료의 자료유형별 비율(%)

(2) 자료유형별 수집방법(건수)

최근 3년간 국립중앙도서관에 입수된 전자출판물의 자료유형별 수집방법을 보면, 웹툰은 자체수집(159,787건)과 납본(1,348건)에 의해 수집되었고 전자책(웹소설 완결본 포함)은 납본(124,692건), 자체수집(14,797건), 수증(3,638건)에 의해 수집되었다. 오디오북은 납본(1,667건)과 자체수집(31건)에 의해 수집되었다. 웹툰은 주로 '자체수집'에 의해 입수된 반면 전자책과 오디오북은 주로 '납본'에 의해 수집되었다(〈표 7〉 참조).

〈표 7〉 최근 3년간 납본·자체수집·수증 자료의 자료유형별 수집방법(건수)

자료 유형	구분	수집방법			총계
		자체수집	납본	수증	
자료 유형	웹툰	159,787	1,348	-	161,135
	전자책 *웹소설 완결본 포함	14,797	124,692	3,638	143,127
	오디오북	31	1,667	-	1,698

(3) 자료유형별 파일형식(건수)

최근 3년간 국립중앙도서관에 입수된 전자출판물의 자료유형별 파일형식을 보면, 전자책은 'pdf'와 'epub', 웹툰은 'jpg(jpeg)', 오디오북은 'mp3' 파일형식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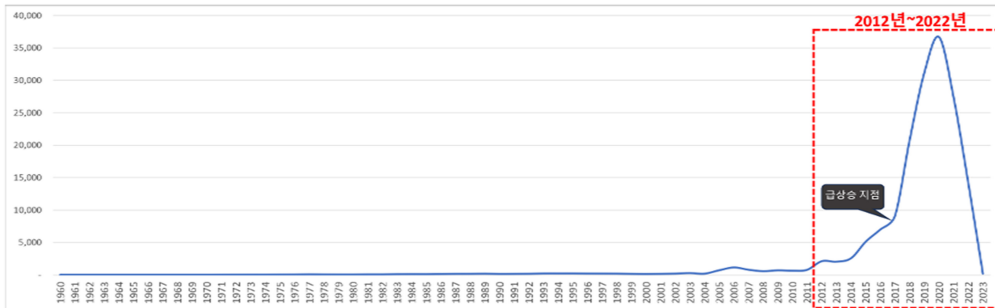
〈표 8〉 최근 3년간 납본·자체수집·수증 자료의 자료유형별 파일형식(건수)

자료 유형	구분	파일형식					총계
		epub	hwp	jpg (jpeg)	mp3	pdf	
자료 유형	웹툰	2	-	160,273	-	860	161,135
	전자책 *웹소설 완결본 포함	37,159	195	1	-	105,772	143,127
	오디오북	-	-	-	1,425	-	1,698

다. 발행년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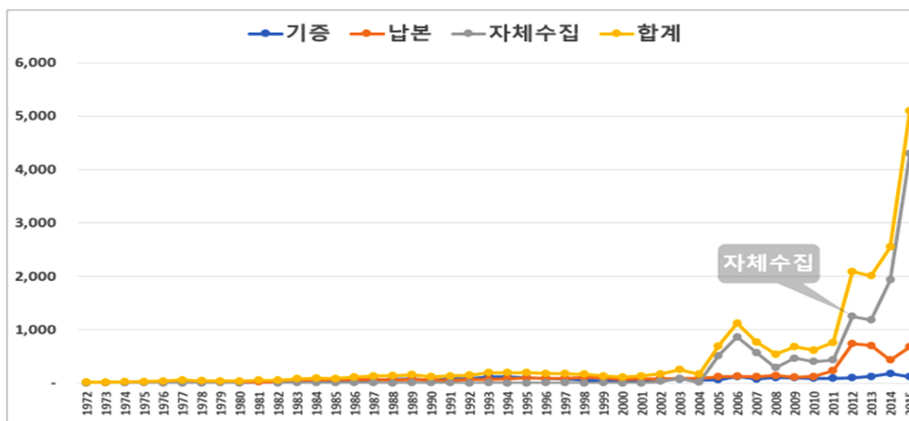
최근 3년간 국립중앙도서관에 입수된 전자출판물의 발행년 분포도를 살펴보면, 1960년부터 2022년까지

발행년이 폭넓게 분포하였다. 그 중에서 2012년부터 2022년에 발행된 전자출판물이 가장 많이 입수되었다 (<그림 3> 참조). 한편, 1960년부터 2011년에 발행된 전자출판물들도 그 수는 적지만 최근 3년간 국립중앙도서관에 입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발행년도 미표기와 발행년도가 '19--', '20--', '202-', '----', '-202', '-201'로 표기된 건수가 135,946건으로 나타나 데이터 정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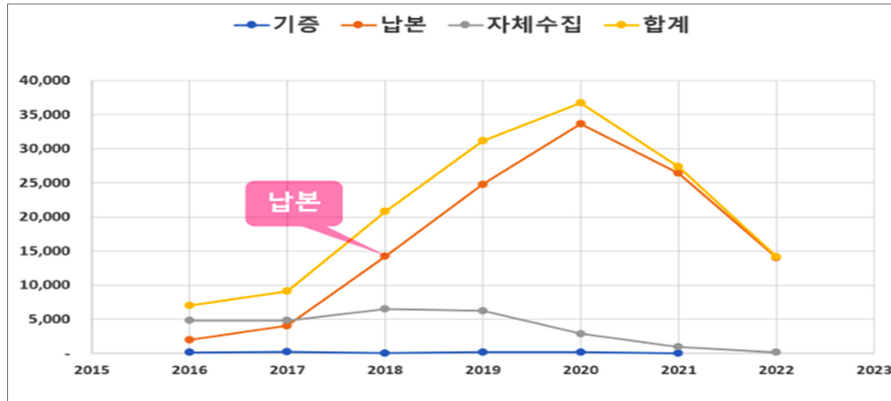


<그림 3> 최근 3년간 납본·자체수집·수증 자료의 발행년 분포도

가장 많이 입수된 2012년부터 2022년에 발행된 전자출판물들의 경우, 2016년 8월 4일 온라인자료 납본법 시행에 따른 영향으로 추정되어,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납본법 시행일 전후로 발행된 전자출판물 수집 방식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그림 4>와 <그림 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016년 8월 4일 이전에 발행된 전자출판물들은 주로 '자체수집' 방식으로 입수한 반면, 2016년 8월 4일 온라인자료 납본법 시행 이후에 발행된 전자출판물들은 주로 '납본' 방식으로 입수되는 경향성을 보였다. 한편, 2021년과 2022년도에 발행된 전자출판물들의 경우, 납본 및 자체수집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년도에 발행된 전자출판물들의 납본 및 자체수집 실적의 저조한 이유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그림 4> 2016년 8월 4일 온라인 자료 납본법 시행 이전 발행자료의 수집방식



〈그림 5〉 2016년 8월 4일 온라인 자료 납본법 시행 이후 발행자료 수집방식

라. 수집방법별 상위 발행처 현황

최근 3년간 국립중앙도서관 전자출판물 수집방법별 상위 발행처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자체수집의 경우, 카카오페이지(5,694건)로부터 가장 많은 전자출판물들을 입수하였고, 다음으로 네이버 시리즈(3,274건), 네이버 만화(2,634건), 네이버 웹툰(1,288건), 피키투(1,167건) 순으로 나타났다. 납본의 경우, 북큐브네트웍스(2,688건), 문피아(2,634건), 시대고시기획(2,307건), 조아라(1,675건), 영상출판미디어(1,519건) 순으로 나타났다. 수증의 경우, 과학기술처(564건), 한국소비자원(532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490건), Korean Overseas Information Service(204건), 통일연구원(181건)으로부터 전자출판물들을 입수하였다.

자체수집에 포함된 발행처들은 주로 웹툰과 웹소설을 발행하는 기관이었으며, 납본에 포함된 발행처들은 전자책 및 학습서, 웹소설, 웹툰 등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었다. 수증을 주로 하는 발행처는 대부분이 국가 기관이었다.

〈표 9〉 최근 3년간 납본·자체수집·수증 자료의 수집방법별 상위 5위 발행처 현황

수집방법	발행처		빈도
자체 수집	카카오페이지		5,694
	네이버	시리즈	3,274
		만화	2,634
		웹툰	1,288
	피키투		1,167
납본	북큐브네트웍스		2,688
	문피아		2,634
	시대고시기획		2,307
	조아라		1,675
	영상출판미디어		1,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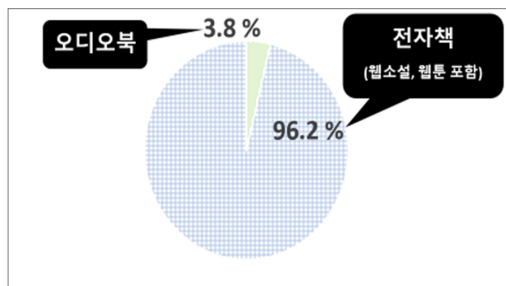
수집방법	발행처	빈도
수증	과학기술처	564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보호원)	53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490
	Korean Overseas Information Service(한국해외공보기관)	204
	통일연구원	181

2. 국립중앙도서관의 ISBN 발급자료 및 납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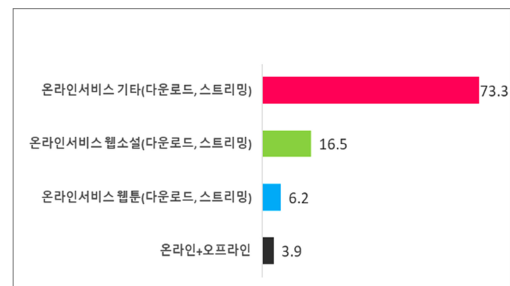
가. ISBN 발급자료의 일반 현황

(1) 자료유형

최근 3년간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ISBN을 발급받은 전자출판물의 자료유형을 보면, 96.2%가 전자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ISBN 발급 신청서에는 웹소설과 웹툰을 전자책과 별도로 분류하지 않아 전자책에 웹소설과 웹툰이 포함되어 있다(〈그림 6〉 참조). 하지만 서비스상태 속성에서는 전자책, 웹소설, 웹툰의 3가지 자료유형을 분류하고 있어, 서비스상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온라인서비스 웹소설(다운로드, 스트리밍)이 16.5%, 온라인서비스 웹툰(다운로드, 스트리밍)이 6.2%로 나타났다(〈그림 7〉 참조). 이를 통해 추정해 보면, 웹소설은 대략적으로 16.5%, 웹툰은 6.2%일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온라인서비스 기타(다운로드, 스트리밍) 73.3%의 경우 웹소설과 웹툰을 제외한 전자책이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되나 오디오북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향후 ISBN 발급 신청을 받을 때 자료유형을 전자책, 웹소설, 웹툰, 오디오북으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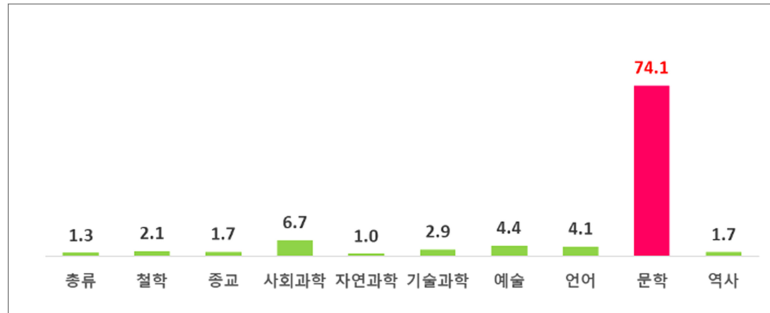
〈그림 6〉 최근 3년간 ISBN 발급자료의 자료유형별 비율(%)



〈그림 7〉 최근 3년간 ISBN 발급자료의 서비스상태별 비율(%)

(2) 주제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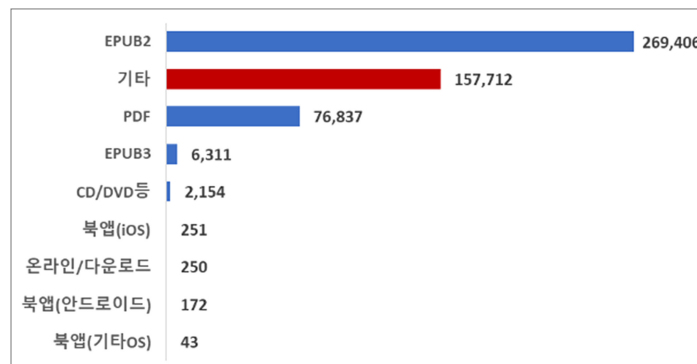
최근 3년간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ISBN을 발급받은 전자출판물의 주제분야를 보면, 문학 분야가 7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8〉 참조). 그 외 주제분야들의 경우, 대부분이 7%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 최근 3년간 ISBN 발급자료의 주제분야별 비율(%)

(3) 파일형식

최근 3년간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ISBN을 발급받은 전자출판물은 다양한 파일형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SBN 발급 신청시 발행처가 파일형식을 직접 입력하고 표준화된 파일형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파일형식 중에서는 epub2(267,406건)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pdf(76,837건)였다(〈그림 9〉 참조). 반면, 기타로 입력된 파일형식도 157,712건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향후 ISBN 발급 신청 시 파일형식을 표준화하여 입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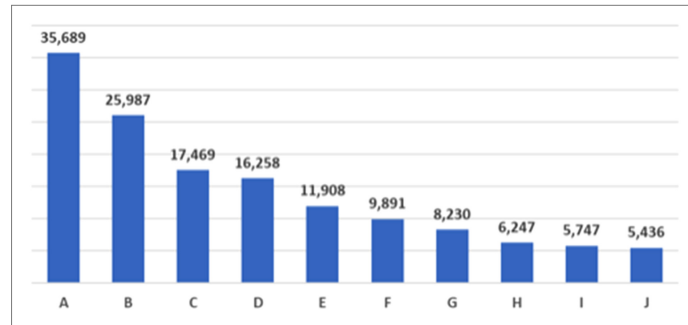


〈그림 9〉 최근 3년간 ISBN 발급자료의 파일형식 비율(%)

(4) ISBN 발급건수 상위 10위 발행처

최근 3년간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ISBN을 가장 많이 발급받은 발행처 중에서 상위 10위를 조사한 결과는 〈그림 10〉과 같다. 가장 많은 ISBN을 발급받은 발행처는 A발행처(35,689건)였으며 다음은 B발행처(25,987건), C발행처(17,469건), D발행처(16,258건), E발행처(11,908건), F발행처(9,891건), G발행처(8,230건), H발행처(6,247건), I발행처(5,747건), J발행처(5,436건) 순으로 나타났다.³⁾ ISBN 발급건수 상위 10위 발행처가 발급받은 총 건수는 142,862건으로 전체 513,136건

수의 27.8%에 해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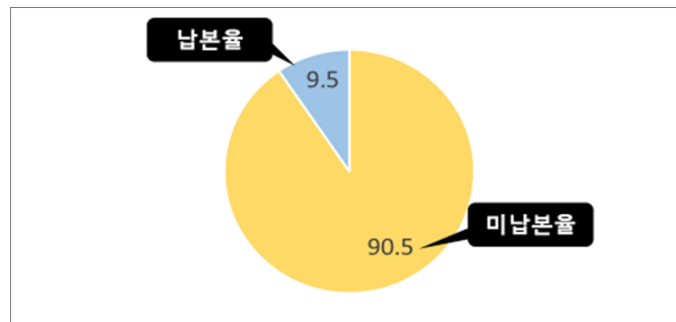


〈그림 10〉 최근 3년간 ISBN 발급건수 상위 10위 발행처

나. ISBN 발급자료의 납본 현황

(1) 납본 및 미납본 현황

최근 3년간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ISBN을 발급받은 전자출판물의 납본 현황 분석을 위해서 ISBN 발급자료들을 대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여부를 매칭하였다. 최근 3년간 ISBN을 발급 받은 전자출판물들의 납본율을 보면, 9.5%로 매우 저조하였다(〈그림 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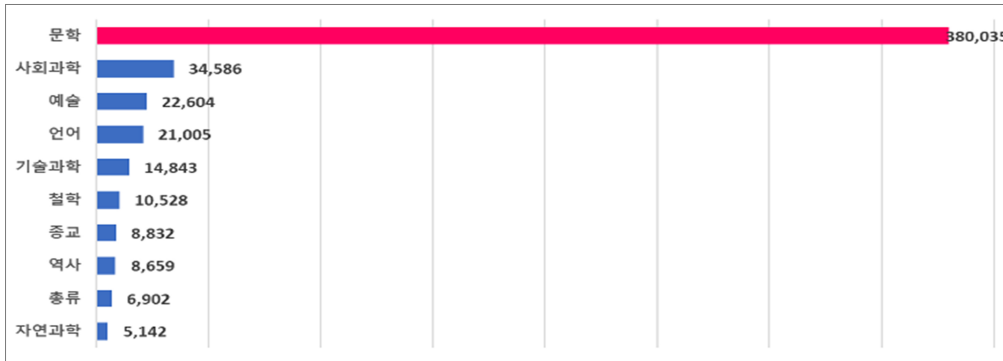


〈그림 11〉 최근 3년간 ISBN 발급자료의 납본 및 미납본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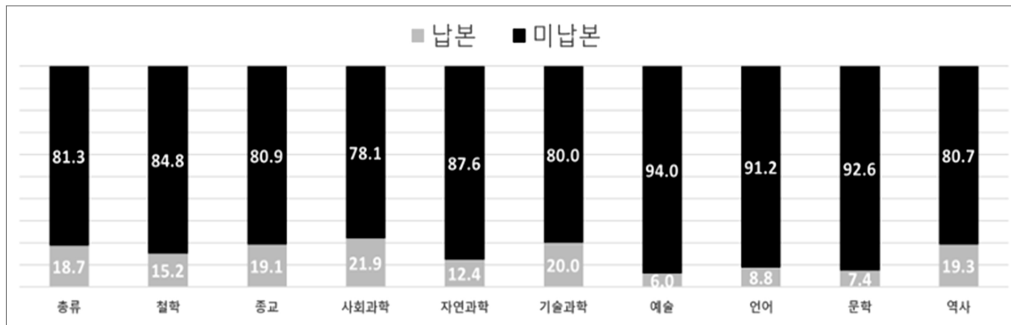
(2) 주제분야별 납본 및 미납본 현황

최근 3년간 주제분야별로 ISBN을 발급받은 전자출판물 건수를 살펴보면, 문학 분야에서 ISBN 발급 건수가 가장 많았다(〈그림 12〉 참조). 하지만, 주제분야별 납본 및 미납본 비율을 살펴보면, 모든 주제분야에서 납본율이 22% 이하로 매우 저조하였다(〈그림 13〉 참조). 특히, ISBN 발급건수가 가장 많은 문학 분야의 납본율이 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3) 발행처의 익명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알파벳을 사용하여 발행처명을 표기하였음



〈그림 12〉 최근 3년간 ISBN 발급자료의 주제분야별 ISBN 발급 건수



〈그림 13〉 최근 3년간 ISBN 발급자료의 주제분야별 납본 및 미납본 비율(%)

다. ISBN 발행건수 상위 10위 발행처의 납본 현황

최근 3년간 ISBN을 가장 많이 발급받은 상위 10위 발행처를 대상으로 납본 건수, 미납본 건수, 총계, 납본율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표 10〉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상위 10위 발행처의 전체 납본율은 5.4%이며 7개 발행처들의 납본율은 0%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개 발행처의 납본율은 E발행처가 60%, H발행처가 7%, G발행처가 2%로 사실상 E발행처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발행처들의 납본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위 발행처의 미납본 자료수는 총 130,954건으로 전체 ISBN 발급건수(513,136건)의 25.5%에 해당하였다. 다만, 상위 10위 발행처들의 미납본 건수 중에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되는 과정에서 납본 제외 대상에 포함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수집된 데이터 세트에 기반해서는 미납본 건수 중에 납본 제외 대상 건수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에 미납본된 130,954건은 추정치로 봐야 할 것이며 향후 납본 제외 대상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상위 10위 발행처의 미납본된 130,954건이 모두 납본된다 가정해 보면, 최근 3년간 ISBN 발급자료의 납본율은 현재 9.6%에서 최대 36%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표 10〉 ISBN 발급건수 상위 10위 발행처의 납본 현황

발행처	납본(건수)	미납본(건수)	총계	납본율(%)
A	-	35,689	35,689	-
B	-	25,987	25,987	-
C	-	17,469	17,469	-
D	-	16,258	16,258	-
E	7,172	4,736	11,908	60
F	-	9,891	9,891	-
G	172	8,058	8,230	2
H	427	5,820	6,247	7
I	-	5,747	5,747	-
J	-	5,436	5,436	-
총계	7,771	135,091	142,862	5.4

3. 분석결과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입수된 최근 3년간 국내 전자출판물의 납본·자체수집·수증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의무 납본 대상인 ISBN이 발급된 최근 3년간 국내 전자출판물의 납본 및 미납본 현황을 조사하였다. 먼저 최근 3년간 국내 전자출판물의 납본·자체수집·수증 현황과 관련한 주요 조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3년간 국립중앙도서관에 입수된 전자출판물들은 주로 자체수집 방식(57.07%)으로 수집되었으며 자체수집된 자료유형은 대부분 웹툰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납본 방식으로 수집되는 경우는 41.74%였으며 그 중에서 민간간행물이 21.63%, 공공간행물이 20.11%인 것으로 나타났다. 납본된 자료유형은 주로 전자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증 방식으로 수집되는 경우는 전체 입수된 전자출판물 중에 1.19%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둘째, 입수된 전자출판물의 파일형식의 경우 전자책은 'pdf'와 'epub', 웹툰은 'jpg', 오디오북은 'mp3' 파일형식이 대부분이었다.

셋째, 발행년 분포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발행된 전자출판물들이 가장 많이 수집되었으나 1960년부터 2011년까지 발행된 전자출판물들도 최근 3년간 국립중앙도서관에 수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6년 8월 4일 온라인자료 납본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시행일 전에 발행된 전자출판물은 주로 '자체수집' 방식으로 수집되었고, 시행일 이후에 발행된 전자출판물은 주로 '납본' 방식으로 수집되었다. 하지만 최근 2021년~2022년에 발행된 전자출판물들의 경우, 전체적으로 납본 건수가 저조하여 이에 대한 원인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납본·자체수집·수증별 상위 발행처 현황을 보면, 자체수집의 경우에는 '카카오페이지', '네이버 시리즈', '네이버 만화', '네이버 웹툰', '피키툰'이 포함되었다. 납본의 경우에는 '북큐브네

트웍스', '문피아', '시대고시기획', '조아라', '영상출판미디어', 수증은 '과학기술처', '한국소비자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n Overseas Information Service', '통일연구원'이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국립중앙도서관 ISBN 발급자료 및 납본 현황과 관련한 주요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ISBN을 발급받은 자료유형은 '전자책'으로 전체의 96.2%인 것으로 나타났다. ISBN 발급 신청 시 전자책에 웹소설과 웹툰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에는 ISBN 신청 시 전자책, 웹소설, 웹툰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ISBN을 발급받은 주제분야는 '문학'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전체 ISBN 발급건수 중에서 74.1%를 차지하였다.

셋째,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ISBN을 발급받은 파일형식은 'epub2'였으며 다음으로 'pdf'였다. 그러나 파일형식이 '기타'인 경우가 많아서 향후 ISBN 신청 시 파일형식을 표준화하여 발행처에서 입력 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ISBN 발행건수 상위 10위 발행처를 통해 발행된 건수는 총 142,862건으로 최근 3년간 ISBN 발급건수(513,136건)의 27.8%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ISBN 발급자료의 납본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ISBN을 발급받은 전자출판물들의 납본율은 9.5%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전반적으로 납본율 향상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분야별로 문학 분야에서 ISBN 발급건수가 가장 많았으나 문학류 납본율은 7.4%에 불과하였다. ISBN 발급건수 상위 10위 발행처 중에서 7개 발행처의 납본율이 0%였으며 사실상 거의 납본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상위 10위 발행처들이 미납본하고 있는 전자출판물은 대략 130,954건으로 추정되었고, 이 자료들이 모두 납본된다고 가정해 보면 최근 3년간 ISBN 발급자료의 납본율은 9.5%에서 최대 36%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V. 논의 및 결론

국립중앙도서관에 입수된 최근 3년간 국내 전자출판물의 납본, 자체수집, 수증 현황 및 ISBN이 발급된 전자출판물의 납본 및 미납본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납본 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4가지 주요 개선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행처의 납본 의무 이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발행처들이 납본의 중요성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납본의 법적 의무와 이로 인한 이점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납본에 대한 인식 부족이 발행처들의 납본 의무 소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충분한 정보 제공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은 납본을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납본의 법적 의무, 절차 및 전자출판물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워크숍과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또한, 납본 절차와 관련된 온라인 튜토리얼, FAQ, 인터랙티브 가이드 등의 다양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발행처들이 언제 어디서든 납본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둘째, 납본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발행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미납본 발행처에 대한 제재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성실한 납본 의무 이행을 한 발행처에는 기존의 납본 보상 외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러한 인센티브로는 정시 납본을 완료한 발행처에게 인증서 발급, 공개적 인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반면, 미납본 발행처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도서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납본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도서관 자료의 정가(비매자료인 경우 발행 원가)의 1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으나 이의 실질적 이행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납본 의무 불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제재 조치의 강구가 필요하다.

셋째, 납본 현황과 관련된 통계 정보를 발행처들과 공유함으로써 납본을 향상을 위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납본율과 관련된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는 납본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납본 현황, 미납본 발행물 목록 등의 데이터를 발행처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관련하여 정기적인 보고서를 발행하여 공개한다. 이러한 조치는 도서관, 발행처, 그리고 이용자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납본과 관련된 데이터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또한 중요하다. 납본율과 관련된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와 정기적인 보고를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을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ISBN 발급 시스템과 납본 시스템 간의 연계성을 통해 전자출판물의 서지사항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진행한 통계조사 과정에서 ISBN 발급 신청 시 작성된 전자출판물의 서지사항들에서 발행년도 미표기 및 부정확한 표기, 자료유형의 불명확한 구분, 그리고 파일형식의 비표준화 등의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SBN 발급 시스템에 자동화된 데이터 검증 알고리즘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알고리즘은 발행년도가 부정확하게 입력될 경우 이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발행처에 정확한 정보 입력을 요청하도록 한다. 더불어, 자료유형과 파일형식에 대한 선택 옵션을 명확하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안내 자료를 발행처에 제공함으로써 자료유형과 파일형식을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전자출판물의 납본 및 수집 현황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고, 납본 및 수집 전자출판물 관리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입수된 전자출판물의 납본 및 수집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납본

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발행처의 납본 의무에 대한 인식 제고, 인센티브 제공 및 제재 조치 강화, 납본 현황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 그리고 ISBN 발급 및 납본 시스템의 데이터 정확성 향상을 위한 기술적 조치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조치들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경우, 전자출판물의 납본율 향상 및 관리 효율성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전자출판 시장은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도서정가제가 전자책까지 확장되면서 다양한 할인정책의 혜택을 받던 전자책의 가격이 인상되었고, 최근 인터넷 서점에서 전자책 대량 유출 사건과 함께 전자책 복호화기가 해킹당해 전자책 및 인터넷 서점 보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전자책 업체에서는 사업 철수의 움직임까지 보이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전자출판 시장의 변화적 요소들을 포함하여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전자출판계의 동향 분석을 추가한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국내 전자출판물에 대한 납본 및 수집 현황을 국립중앙도서관 데이터에 기반하여 분석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국내 전자출판물의 납본율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립중앙도서관 (2023a).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납본·수집 지침.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과.
- 국립중앙도서관 (2023b).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곽승진, 김정택, 박옥남, 최재황 (2013).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3), 161-179. <https://doi.org/10.4275/KSLIS.2013.47.3.161>
- 곽승진, 최재황, 조영주, 류희경 (2008). 디지털자료 납본에 대한 보상 체계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2), 65-83. <http://doi.org/10.16981/kliss.39.2.200806.65>
- 노영희 (2009). 국내외 국가도서관 납본절차 분석을 통한 납본업무의 합리적 운영방안 도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4), 173-189. <https://doi.org/10.14699/kbiblia.2009.20.4.173>
- 서혜란 (2003). 디지털자료의 납본과 보존을 위한 각 국가의 노력. 정보관리학회지, 20(1), 373-399. <https://doi.org/10.3743/KOSIM.2003.20.1.373>
- 윤희윤 (2002). 국내외 전자출판물 납본제도의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2), 185-207. <https://doi.org/10.4275/KSLIS.2002.36.2.185>
- 윤희윤 (2003). 한국의 납본제도 개선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4), 24-52.

- <https://doi.org/10.4275/KSLIS.2003.37.4.024>
- 윤희윤 (2014).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수집력 강화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3), 5-26.
<https://doi.org/10.4275/KSLIS.2014.48.3.005>
- 이숙현 (2003). 하이브리드도서관을 지향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자출판물 수집 정책.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4(1), 63-78.
- 이지연 외 (2022).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 보상체계 수립방안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장보성, 남영준 (2010). 온라인 전자책 보존을 위한 납본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4), 435-456. <http://doi.org/10.4275/KSLIS.2010.44.4.435>
- 장혜란, 홍현진, 노영희, 오의경 (2009). 국가장서 포괄성 측정 연구: 판매도서를 대상으로. 정보관리학회지, 26(4), 187-200. <https://doi.org/10.3743/KOSIM.2009.26.4.187>
- 정준민 (2019). 디지털 출판물 유통 플랫폼 개념설계에 관한 연구 - 사회적 협동조합형 비즈니스 모델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4), 33-55.
<http://doi.org/10.16981/kliss.50.4.201912.33>
- 출판유통진흥원 (2021). 국제표준자료번호와 납본업무 연계 및 효과성 조사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최재황, 박승진, 김정택 (2009).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체계 및 이용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1), 209-232. <http://dx.doi.org/10.16981/kliss.40.1.200903.209>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1a). 2020 출판산업 실태조사.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1b). 전자출판 산업분석 및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
- 한국출판콘텐츠 (2020). 공공도서관 전자출판물 B2B 계약 개선을 위한 연구. 전라북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 2020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2022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
- 한혜영 (2003). 전자출판물의 납본시스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0(3), 51-79.
<http://doi.org/10.3743/KOSIM.2003.20.3.051>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Book Trade Promotion Center (2021). Investigating the Effectiveness of Integration of ISBN and Legal Deposit Function.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Chang, Hye-Rhan, Hong, Hyun-Jin, Noh, Younghee, & Oh, Eui-Kyung (2009). Measuring the coverage of book collection in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6(4), 187-200.
<https://doi.org/10.3743/KOSIM.2009.26.4.187>
- Choi, Jae-Hwang, Kwak, Seung-Jin, & Kim, Jeong-Taek (2009). A study on legal deposit process and use of online digital material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1), 209-232. <http://dx.doi.org/10.16981/kliss.40.1.200903.209>
- Chung, Jun Min (2019). Conceptual design on the marketing platform for e-book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0(4), 33-55.
<http://doi.org/10.16981/kliss.50.4.201912.33>
- Han, Hyeyoung (2003). A study on the deposit system for electronic publicatio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0(3), 51-79.
<http://doi.org/10.3743/KOSIM.2003.20.3.051>
- Jang, Bo-Seong & Nam, Young-Joon (2010). Research on improvement of the legal deposit system for the preservation of online electronic book.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4), 435-456.
<http://doi.org/10.4275/KSLIS.2010.44.4.435>
-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2020). 2020 Webtoon Business Status Survey.
-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2022). 2022 Webtoon Business Status Survey.
- Korea Publishing Contents (2020). A Study on Improving B2B Contracts for Electronic Publications in Public Libraries. Jeollabuk-do: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 Kwak, Seung-Jin, Choi, Jae-Hwang, Cho, Young-Joo, & Ryu Hee-Kyeong (2008). A study on reimbursement for legal deposit of digital product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2), 65-83. <http://doi.org/10.16981/kliss.39.2.200806.65>
- Kwak, Seung-Jin, Kim, Jeong-Taek, Park, Ok-Nam, & Choi, Jae-Hwang (2013). A study on legal deposit guidelines for online digital material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3), 161-179.
<https://doi.org/10.4275/KSLIS.2013.47.3.161>
- Lee, Jee Yeon et al. (2022). Establishment of Compensation System for Collection of Online Materials a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Lee, Sook Hyeun (2003). Acquisition policy on electronic publications by the National

- Library of Korea toward hybrid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4(1), 63-78.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23a). *Guidelines for Legal Deposit and Acquisition of Online Materials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Seoul: Online Materials Division a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23b). *Guidelines for Collection Development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Noh, Younghee (2009). Suggesting the reasonable legal deposit operating plan through analyzing the legal deposit process of national libraries of the world.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4), 173-189.
<https://doi.org/10.14699/kbiblia.2009.20.4.173>
-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2021a). *2020 Publishing Industry Status Survey*.
-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2021b). *Research Study for Electronic Publishing Industry Analysis and Revitalization*.
- Suh, Hey-Ran (2003). Legal deposit and preservation of digital materials in various count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0(1), 373-399.
<https://doi.org/10.3743/KOSIM.2003.20.1.373>
- Yoon, Hee-Yoon (2002). A comparative analysis of legal deposit system for electronic publicatio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6(2), 185-207. <https://doi.org/10.4275/KSLIS.2002.36.2.185>
- Yoon, Hee-Yoon (2003). A study on the reform model of legal deposit system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7(4), 24-52.
<https://doi.org/10.4275/KSLIS.2003.37.4.024>
- Yoon, Hee-Yoon (2014). A study of the strengthening legal deposit collection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3), 5-26. <https://doi.org/10.4275/KSLIS.2014.48.3.005>